

목포, 실업률 높아 '울고' ... 화순, 일용직 많아 '한숨'

■상반기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단위:%)

| 시군명 | 고용 | 실업 | 시군명 | 고용 | 실업 |
|-------|------|-----|-------|------|-----|
| 1 신안 | 76.6 | 0.1 | 12 영암 | 65.8 | 2.8 |
| 2 고흥 | 74.6 | 0.2 | 13 함평 | 65.6 | 0.6 |
| 3 해남 | 74.3 | 0.3 | 14 담양 | 65.2 | 0.3 |
| 4 보성 | 70.3 | 0.2 | 15 곡성 | 64.7 | 0.2 |
| 5 진도 | 69.9 | 0.7 | 16 나주 | 64.6 | 1.5 |
| 6 강진 | 68.1 | 0.8 | 17 광양 | 63.9 | 1.0 |
| 7 장흥 | 67.9 | 0.6 | 18 화순 | 61.8 | 2.2 |
| 8 영광 | 67.5 | 1.1 | 19 여수 | 61.4 | 1.4 |
| 9 완도 | 67.4 | 0.6 | 20 무안 | 60.7 | 1.9 |
| 10 장성 | 67.2 | 2.1 | 21 순천 | 59.7 | 2.5 |
| 11 구례 | 66.4 | 0.1 | 22 목포 | 55.5 | 3.2 |

(자료:통계청)

통계청 발표, 전남 시·군 고용지표

올해 상반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목포시였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15~29세) 고용률이 30%도 되지 않는 지역에는 곡성·화순·목포·무안·함평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통계청이 전국 154개 시·군을 대상으로 펴낸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에 담겼다.

이번 조사는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를 집계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남 5개 시(市) 평균 고용률은 60.4%였고, 17개 군(郡) 평균 고용률은 67.7%로 나타났다.

곡성·화순·목포·무안·함평, 청년 고용률 30%도 안 돼

5개 시 평균 고용률 60.4%, 17개 군은 67.7%

고용률 나주 전국 77개 시 중 5위·신안 77개 군 중 3위

이는 1년 전 고용률보다 각각 1.1%포인트, 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시와 군지역 고용률 감소폭이 달랐던 데는 코로나19 여파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군 지역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시 지역에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 측은 풀이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이 70% 선을 넘긴 지역은 신안(76.6%), 고흥(74.6%), 해남(74.3%), 보성(70.3%) 등 4곳이었다. 고용률 60% 선을

미달한 지역은 목포(55.5%)와 순천(59.7%)였다.

전국 77개 시와 77개 군을 나눠 고용률 상위권을 살펴보니 나주(64.6%)는 시지역에서 5번째로 높았고, 신안과 고흥은 군지역에서 각각 전국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고용률의 증감폭을 보면 보성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오르며 22개 시·군 중 가장 크게 고용률이 올랐다. 반면 곡성은 69.6%에서 올해 64.7%로 4.9%포인트 떨어지며 큰 감소폭을 보였다.

154개 시·군의 15세~29세 청년 고용률을 비교해보니 하위 30위권에 드는 전남 시·군은 곡성(24.4%), 화순(25.7%), 목포(26.7%), 무안(26.8%), 함평(29.2%) 등 총 5곳이었다. 전국 34개 시·군만이 청년 고용률이 30%도 되지 않는 지역으로 집계됐다.

고흥(58.1%), 완도(53%), 진도(52%), 신안(51.6%), 해남(48.7%) 등 5곳은 청년 고용률 상위 30위권에 들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3.2%를 기록한 목포시였다. 목포 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목포에 이어 영암(2.8%), 순천(2.5%), 화순(2.2%), 장성(2.1%) 순으로 실업률이 높았다. 구례·신안(각 0.1%), 곡성·고흥·보성(각 0.2%) 등은 상

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니 임금근로자 비중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신안(22.1%)으로 나타났다. 보성 임금근로자 비중은 28.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올 상반기 화순 취업자 3만2000명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는 25.9%에 달하는 8300명이었다. 이 비중은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남지역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화순에 이어 여수(18.6%), 목포(18.4%), 순천(17.9%), 광양(17.8%) 등 시지역 중심으로 높았다.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거주지 기준보다 33.3%포인트 높았다. 이는 경북 고령(35.1%포인트)에 이

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격차로, 통계청 관계자는 "영암에 있는 산업단지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금융거래 어제부터 정상화

납품업체 대금·급여 등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법인계좌가 압류됐던 금호타이어의 금융거래가 25일부터 정상화됐다.

금호타이어는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이달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

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전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위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킹단호박으로 든든하게” 25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점 직원들이 국내산 햇단호박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9개 롯데마트는 26일까지 1.5kg 안팎 '킹단호박'을 할인가(개당 2980원)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6.73 (+36.90) ↑ 금리(국고채 3년) 0.825 (+0.001)
- ↑ 코스닥 836.31 (+20.57) ↓ 환율(USD) 1185.10 (-4.00)

한전, 9월 급여 105억 은누리상품권 지급

한국전력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직원들의 9월 급여 105억원 상당을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급여 지급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 양측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앞서 한전은 자회사와 함께 코로나19 고동 분담을 위해 5억9000만원의 급여

반납분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 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러브펀드'를 통해 제작한 수제 마스크 10만세트를 기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성금 32억원을 사회봉사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전국 1694개 전통시장에 손 소독제 10만개를 배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열굴

“광융합산업 활성화로 역할·위상 제고”

정철동 광산업진흥회장

“코로나19로 새롭게 부상한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광융합산업을 활성화시켜 진흥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25일 한국광산업진흥회 8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철동(59·사진) 전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은 광융합산업별 상호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광융합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국내 LED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광융합산업 분야 통계 국가



승인기관 지정, 광융합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며 “진흥회가 광융합기술 진흥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마련과 광융합산업의 전주기적 로드맵 수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정철동 전 대표를 8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내달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

1등 장학금 2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오는 9월 30일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020년 2학기 대학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402명에게 장학금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2등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행운상 4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상품권 1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오는 10월 중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미래재원인 지역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